

(1) 기미이데라(절) (제 7 권-1213 번)

【시비 내용】

나구사야마 코토니시아리케리 이가코이노 치에노히토에모 나구사메나쿠니

【해설】

이 시는 만요슈(만엽집) 제 7 권에 실린 시(1213 번 시)입니다. 나구사야마는 와카우라만 동쪽에 우뚝 솟아 자리잡은 산입니다. 이 시비는 나구사야마(산)의 종턱에 있는 키미이데라(절) 경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구사야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산세를 가진 산입니다. 이 지역을 찾은 만요 시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잔잔한 바다 그리고 온화하게 자리잡은 나구사야마(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작자는 나구사야마(산)의 “나구사”에, 마음을 위로받는다는 의미의 “나구사”를 연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구사야마(산)을 향해도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는지. “나구사야마(산)는 이름뿐인 산이었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을 천분의 일도 위로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읊었습니다.

만요슈시대의 “사랑”은 애절하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애절함을 나구사야마는 안타깝게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비의 문자는 **초지모토 류잔** 씨의 필적입니다.